

어둑새벽, 아직 새벽 단잠에 취한 마을을 포위한 토벌군들은 마을 외곽부터 차례차례 줄불을 놓고 총을 난사하면서 주민들을 마을 한가운데 삼거리로 몰아붙였다. 아버지는 지붕 귀퉁이에 달라붙은 불을 잡으려고 허둥지둥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그 즉시 총맞아 굴러떨어지고, 어머니는 총개머리판에 등짝 찍혀 곤두박질치며 집 밖으로 끌려나갔다. 병수는 그 경황중에도 불붙은 외양간에서 울부짖는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를 고삐 풀어 내보내주고 나서 급히 어머니를 뒤쫓아갔다. 마을은 불바다로 변하고 화광이 충천하여 하늘의 구름까지 핏빛으로 물들여놓고 있었다. 이 골목 저 골목 달아나던 사람들과 마소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잠자다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가축들이 불에 타 죽는 비명소리가 처절했다. 그 아수라의 불길 속에서 쇠바가지 모자에 흰띠 두른 저승차사들이 미친 듯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미쳐 피하지 못한 젊은이 스무 명 가량이 희생물로 점찍혔다. 여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병수 어머니도 그 중에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스물여섯살이었다.

해가 떠오르자 그들은 마을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 뒤를 얼마쯤 사이 두

고 병수가 주춤주춤 따라갔다. 어머니는 그 행렬의 맨 뒤에 있었다. 어머니가 어서 돌아가라고 손짓했다. 그래도 따라갔다. 이번엔 토벌군이 총대를 휘두르며 따라오지 말라고 위협했다. 두려움에 오금이 오그라붙는 듯했으나 걸음이 멈춰지지 않았다. 복받치는 울음을 참느라고 자꾸만 팔꼭질이 일어났다. 마침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고 더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병수를 향해 마구 돌맹이를 집어던졌다. 병수는 우뚝 멈춰섰다. 어머니가 던진 돌맹이 중 하나가 바로 앞에 떨어져 발밑으로 굴러왔다. 병수는 그 돌을 집어 손에 꼬옥 쥐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다른 사람들과 분간 안 되게 녹아들 즈음에, 행렬은 냇가 절벽 위에 닿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일제사격의 총성. 뜨거운 쇠불이의 급류가 별거숭이 생명, 인간의 멀쩡한 육체를 향해 일시에 밀려가 그들을 휩쓸고 절벽 밑으로 떨어뜨렸다.

설촌(設村) 6백년의 해묵은 마을이 그렇게 잠깐 사이에 파괴되어버렸다. 삼대 중 중간의 젊은 세대가 완전히 박멸되어 늙고 어린 자들만이 남았다. 병수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다. 친척 노인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옮겨와